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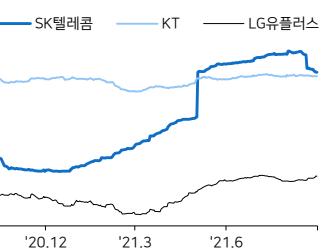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2.4	-1.4	-3.8	2.3	11.1	11.1	1.2	1.2	1.6	1.6	
통신업종	0.7	-0.1	-5.5	21.6	9.0	9.0	0.8	0.8	3.7	3.7	
SK텔레콤	0.5	-1.8	-8.1	20.4	9.1	7.5	0.9	0.8	3.3	3.5	
KT	-0.5	-4.2	-0.9	21.3	8.7	8.2	0.6	0.5	4.9	5.3	
LG유플러스	2.1	1.7	-6.1	21.5	9.0	8.1	0.8	0.8	3.6	3.9	
AT&T	-1.7	-3.5	-7.3	-8.0	8.4	8.5	1.1	1.0	7.7	7.3	
Verizon	-1.9	-2.4	-5.4	-2.3	10.3	10.2	2.8	2.5	4.7	4.8	
T-Mobile	-3.9	-9.5	-10.0	3.8	51.5	37.5	2.4	2.3	0.0	0.0	
NTT	5.5	14.9	12.5	15.7	13.2	10.7	1.5	1.4	3.2	3.4	
KDDI	5.3	11.0	3.0	7.2	13.1	12.7	1.8	1.7	3.2	3.4	
Softbank	15.8	7.9	-10.3	-32.5	3.2	7.1	1.6	1.1	0.6	0.6	
China Mobile	1.1	-3.0	0.4	-6.2	7.3	6.9	0.7	0.7	7.4	8.0	
China Unicom	1.2	-2.8	-1.9	-9.9	7.2	6.4	0.3	0.3	6.8	7.9	
China Telecom	0.4	-12.0	11.0	3.0	7.6	7.3	0.5	0.5	7.7	8.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0% (-0.3%p WoW, -1.9%p MoM)

KT 44.2% (Flat WoW, -0.1%p MoM)

LGU+ 33.2% (+0.2%p WoW, +0.5%p MoM)

LGU+, 2주 연속 외국인 지분율 상승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9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3.1%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전체적인 종시 조정 가운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통신주는 주가 방어 성공 LG유플러스,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를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LGU+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은 LGU+, KT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Apple이 15일 '스페셜 이벤트'를 온라인 개최하고 아이폰13 포함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 아이폰13 포함 5G 단말기의 지속적인 출시는 국내 5G 가입자 순증에 긍정적 5G 통신장비 섹터는 4Q21부터 인도 Reliance Jio 물량 출하로 업종 센터먼트 회복 전망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강화로 글로벌 광섬유/광케이블 수요 회복 및 업황 터어라운드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pple '스페셜 이벤트' 온라인 개최 (오전 2시)	16	17	18

3 주간 뉴스

▶ 디즈니플러스, 11월 12일 출시…월 구독료 4인 기준 9900원

(전자신문)

- 월트디즈니컴퍼니, 11월 12일 OTT 디즈니플러스를 국내 출시, 월 구독료는 9,900원
- 마블, 디즈니, 스타워즈 등 출시 시점 라인업도 공개. 향후 국내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
- 디즈니플러스의 월 9,900원 구독료 금액은 한국 OTT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전망
- ⇒ 디즈니는 당분간 한국 콘텐츠 확보에 많은 힘을 쏟기 보다는 자사 콘텐츠 공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 한국 OTT구독자는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디즈니+ 한국 상륙 파트너는 LG…KT는 나중에

(이데일리)

- 디즈니+가 11월 한국 상륙과 동시에 LG유플러스 IPTV와 LG전자 스마트TV에 탑재돼 서비스될 전망
- KT 역시 협상 중이나, 디즈니가 요구하는 앤드로이드 셋톱박스 비중을 맞추지 못해 협상 장기화
- KT의 앤드로이드 셋톱은 전체 셋톱박스의 30%, 반면 LG유플러스는 앤드로이드 비중이 97%
- ⇒ 한국인 사용자가 가장 많은 OTT 앱은 넷플릭스로 910만명, 그 뒤로 웨이브, 티빙, U+모바일 tv 순
- ⇒ 디즈니는 LG유플러스를 파트너로 해서 국내 미디어 시장에 상륙하고, KT와도 협상을 지속할 계획

▶ 中 5G 실적 악화 에릭슨, '난징'서 대규모 감원

(ZD Net Korea)

- 에릭슨, 중국 난징연구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전직 권고, 전직 및 실직 대상 인원 총 630명
- 연구개발 감원 조치가 이례적인 이유는 에릭슨이 중국에서 연구개발에 큰 공력을 기울여왔기 때문
- 에릭슨이 매년 중국에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은 30억 위안(약 5381억)으로 5개 개발기지 운영
- ⇒ 에릭슨이 지난 7월 중순 발표한 올 2분기 중국 시장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감소
- ⇒ 에릭슨은 스웨덴 정부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역풍으로 중국 5G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된 상황

▶ SK텔레콤 'T우주' 가입자 15만 돌파

(전자신문)

- SK텔레콤 구독 서비스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T우주'가 론칭 일주일만에 가입자 15만을 돌파
- 온라인 소비 주력세대인 20~40대 80%(20대 19%, 30대 33%, 40대 29%) 이상 차지
- T월드, 11번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70%,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은 30% 수준
- ⇒ SK텔레콤은 현재 100여개 제휴사와 추가 협의 중이라, 고객의 선택권이 갈수록 확장될 전망
- ⇒ 구독시장은 MZ세대의 급부상으로 2025년 3,000조원, 국내 시장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KT '임단협 합의안' 59.7% 가결…민심 수습 '관건'

(아이뉴스24)

- KT노동조합, 2021년 단체교섭 조합원총회 결과 찬성을 59.7%로 가결됐다고 임직원에 공지
- 해당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 1인당 평균 연 75만원, 500만원 일시금(주식 포함) 등
- 그러나 해당 합의안이 공개되자 일부 KT 임직원들은 실질적 삭감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 표출
- ⇒ 임단협 사상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한만큼 이번 가결에 대한 내부 잡음은 지속될 전망
- ⇒ 노동조합에 대해 반발해 MZ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 HBO 맥스, 다음달 유럽 진출

(ZD Net Korea)

- HBO 맥스, 다음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내년 중부 유럽 및 동유럽 진출
- HBO 맥스는 지난해 5월 출시 후 1년여 만에 구독자 4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
- HBO 맥스의 핵심 전략은 자체 프로그램 제공 및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극장과 동시 개봉
- ⇒ AT&T는 연말까지 전세계 HBO/HBO Max 가입자 7,000~7,300만명 전망
- ⇒ 향후 워너브라더스는 HBO Max에서 1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 극장과 동시 개봉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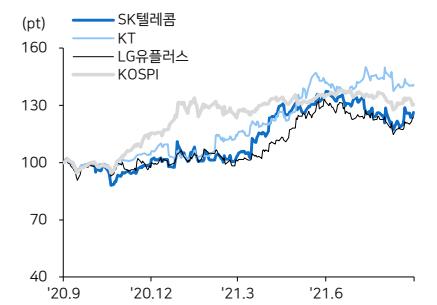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7,000	18.9	17.0	17.6	1.3	1.5	2.2	2.5	5.0	5.1	5.7	5.5	10.3	11.1
	KT	32,750	7.3	21.2	21.8	1.3	1.4	0.8	0.9	4.5	4.6	2.8	2.8	6.9	7.1
	LG유플러스	14,700	5.5	12.0	12.6	0.9	1.0	0.6	0.7	3.0	3.1	3.7	3.6	9.4	9.8
미국	AT&T	27.2	194.1	171.8	161.0	34.1	32.9	22.4	22.1	52.9	52.2	7.2	7.3	13.5	12.4
	Verizon	54.2	224.5	135.2	136.2	32.1	33.2	22.0	22.2	48.5	49.9	7.7	7.5	28.8	25.7
	T-Mobile	130.8	163.2	80.5	82.3	7.3	9.6	3.1	4.4	26.3	27.9	9.0	8.5	4.9	5.9
일본	NTT	3,279	116.4	108.2	109.7	15.1	15.7	8.4	10.0	29.0	29.5	6.7	6.5	10.8	14.3
	KDDI	3,728	78.1	48.5	49.1	9.6	9.7	6.0	6.0	16.3	16.3	5.7	5.7	14.5	13.7
	Softbank	7,179	112.5	50.9	54.9	49.9	9.7	37.1	13.1	50.0	20.6	5.4	13.0	39.3	12.5
중국	China Mobile	48.8	128.5	129.9	137.1	18.4	19.7	17.6	18.9	47.5	49.6	1.2	1.1	9.7	9.9
	China Unicom	4.2	16.4	50.2	53.1	2.1	2.4	2.3	2.5	15.1	15.8	0.9	0.9	4.5	5.0
	China Telecom	2.7	59.3	66.6	71.4	5.3	5.8	4.0	4.3	19.4	20.3	3.3	3.2	6.7	6.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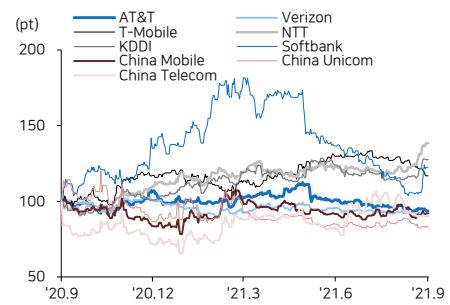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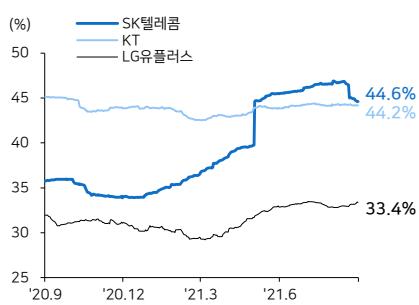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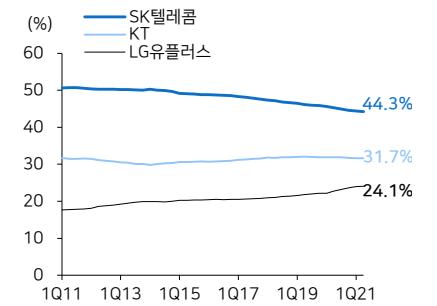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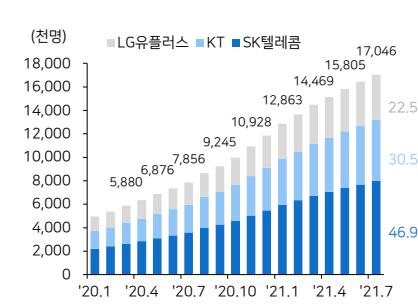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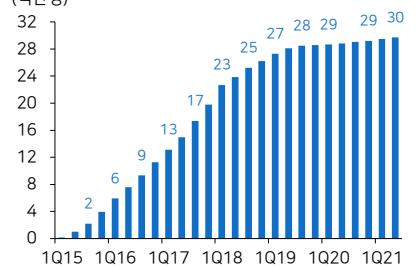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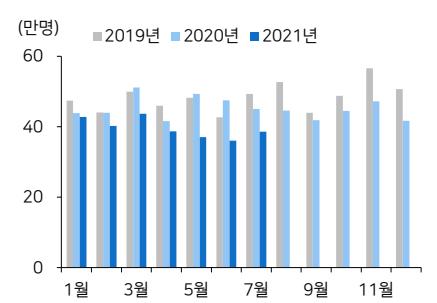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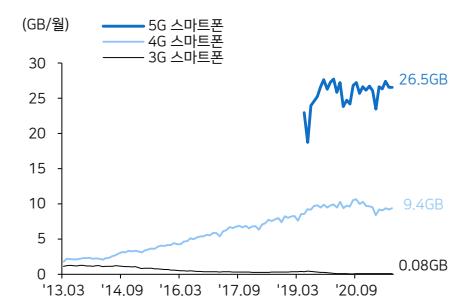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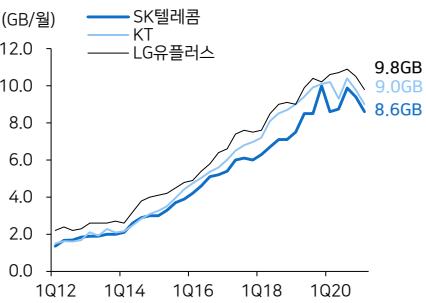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